

'24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 -9	9.25	회의실	10/12	4	1	15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안나·박양우·박종수·유한별·이경주·이숙희·장은백·정인영·정희(10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김주호(경영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5	3	1	4	13	0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1	0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뉴스 ‘한 걸음 더’, 광주비엔날레 소개 시 전문가 외에 시민 인터뷰, 시민 생활 속 프로젝트 소개 기대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24.9.
”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보도 지속해주길 바람	<남도탐구생활> 영광 한빛원전 수명 연장 주민공청회 재개(10.1) 등 방송 조치	”
”	뉴스 유튜브 자막 오탈자 많음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조치 및 유튜브 자막 점검 조치	”
”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지역민의 이해 증진에 역할 필요	<5시 뉴스> 무안군의회 “광주 군공항 이전, 도 넘은 밀어붙이기”(10.11), <뉴스투데이> 계속되는 소모전..여론조사 각각 재개(10.8), 김영록, “군공항도 받아야 하는데”(10.7) 등 방송 조치	”
”	광주비엔날레 지속적인 방송 필요	<남도탐구생활> 소리로 하나되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9.26) 등 방송 조치	”
교양	<남도탐구생활> 음성 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 개선 필요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남도탐구생활>, 명절 뒤 지역 관련 소식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남도탐구생활>, 월간 본술랭 자막 크기 작아 불편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자막 모니터링 시행 조치	”
연예·오락	<문화콘서트난장> 생방송, 녹화 여부 등 정보 제공 필요	생방송의 경우 ‘생방송’ 또는 ‘LIVE’ 자막 표기 조치	”
기타	<문화콘서트난장> 홈페이지, 블로그 최신 정보 업로드 안 됨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사 용광로> 다시 보기 진행자 이름 오자 수정 필요	홈페이지 오자 수정 조치(9.26)	”
”	디지털콘텐츠 섹션, 한글 제목 활용 제안 (이경주)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 및 한글 사용 확대 노력 조치	”
” (시청자 의견)	아침 뉴스 방송 시간 20분에서 80분으로 확대 편성 바람	편성 책임자와 검토 및 지역 뉴스 확대 노력 조치	”
합계		13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 ‘한 걸음 더’, 광주비엔날레 소개 시 전문가 외에 시민 인터뷰, 시민 생활 속 프로젝트 소개 기대	광주비엔날레 양림동 전시장과 파빌리온 적극 소개 및 종료 때까지 지속해서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음	○		
"	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보도 지속 해주길 바람	지역민의 관심이 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음	○		
"	뉴스 유튜브 자막 오타자 많음	오타자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고 발생했을 시 즉각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음	○		
"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지역민의 이해 증진에 역할 필요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 다른 지역 사례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당위성을 입증해나가겠음	○		
"	광주비엔날레 지속적인 방송 필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광주에서 진행되는 여러 미술, 예술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도해나가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교양	<남도탐구생활> 음성 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 개선 필요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음	○		
"	<남도탐구생활>, 명절 뒤 지역 관련 소식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	방송 소재를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		
"	<남도탐구생활>, 월간 본술랭 자막 크기 작아 불편	자막 크기를 재점검하겠음	○		
연예·오락	<문화콘서트난장> 생방송, 녹화 여부 등 정보 제공 필요	생방송의 경우 ‘생방송’ 또는 ‘LIVE’로 표기하고 있음	○		
기타	<문화콘서트난장> 홈페이지, 블로그 최신 정보 업로드 안 됨	현재 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재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방송 정보는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	<시사 용광로> 다시 보기 진행자 이름 오자 수정 필요	즉시 수정하고 오자 점검을 철저히 하겠음	○		
"	디지털콘텐츠 섹션, 한글 제목 활용 제안	한글 사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 (시청자의견)	아침 뉴스 방송 시간 20분에서 80분으로 확대 편성 바람	뉴스 편성 시간 80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지역 뉴스 비중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9월)

일 시	2024. 9. 25.(수) 16시	장 소	광주비엔날레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 김안나 · 박양우 · 박종수 · 유한별 · 이경주 · 이숙희 · 정인영 · 정희 위원(9명)	
	회사	김낙곤 사장, 김주호 경영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을 맞아 오늘은 이곳에서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지역적 대사이자 세계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먼저 사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낙곤 사장 : -세계 현대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을 축하드린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관람하기 어려운데 모처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현대미술인데 오늘 좀 더 이해를 높이고 광주에서 열리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
- 박양우 위원장 : -먼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길 바란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AI 관련 특집 다큐 제작을 계속하고 있다. 4차 산업의 핵심 동력이자 첨단기술산업 기반인 AI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모색하고, AI 광주시대 요건 등을 살펴볼 것이다. 라파(RAPA) 지역 MBC 6개 사 공동제작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가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한 편씩 9월 20일까지 12편을 방송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버추얼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우리 가락 우리 문화>를 제작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창사 60주년 특별생방송 <민음의 60년! 여러분의 광주문화방송입니다>를 10월 8일 오후 5시~7시 TV, RADIO, 디지털 동시 방송한다. <가요베스트>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특집으로 10월 5일에 진행한다. 창사 60주년 특집으로 <놀라운 세시> 공개방송이 9월 28일 담양LP음악충전소에 있으며, <정오의 희망곡> 공개방송이 10월 18일 양림동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특별편성 <프레지던트>, <타이거즈 왕조>,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를 방송 준비하고 있으며, 무등산권지오마라톤 중계를 10월 13일에 한다. 창사 60주년 특별생방송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11월 22일에 있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공항 이전 지역사회 의제화에 집중했다. 추석 직전 <시사 용광로> 시간에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했으며, 국회의원과 광주시장, 전남지사 간담회 연속보도를 했다. 홈페이지에는 '공항 이전 이슈' 메뉴를 신설했다. 서른 살 맞은 광주비엔날레를 집중하여 보도했는데,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양림동과 파빌리온 등 타사에 비해 깊이 있는 연속보도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규제 논란 연속보도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제한 9월 시작됐다는 점,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우리 지역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상대사에서도 보도 이후 주제 토론을 열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취재 후기 등을 통해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사 용광로>는 그동안 끝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 대책은?, 광주시 폭염 대비, 어떻게?, 광주 찾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은?, 답보상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풀 열쇠는?, 추석 민심과 한 달 앞 재보선 전망은?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 창사 60주년 특집 뉴스데스크를 준비 중이며, 특집 대토론 2부작 <항쟁과 헌법>, 창사 60주년 특집 연속 기획보도 '광주MBC와 나' 등을 준비 중이다.
- 박양우 위원장 :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창사 60주년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 이루기를 기대한다.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다.
- 강필오 위원 : -<남도탐구생활>에서는 나주에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 응원 소식으로 시작해

서, 나주시의회 방청권 논란, 나주배 미국 수출 소식을 나눠주셨다. 나주신문 박철환 기자의 목소리로 나주 현장 상황을 알려주셨고, 생생한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은 좋았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완성하기 위한 관련 영상 삽입이 더욱 필요해 보였고 음성 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영광 여행 꿀팁 대방출! 편에서는 영광 물무산 ‘맨발 황톳길’로 시작해서, 영광 공공 승마장, 모래미 해수욕장, 백합죽, 볼거리 먹거리 알려주셔서 좋았다. 특히,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가 함께 진행해 주셔서 영광의 특성을 알리고 더욱 풍성한 방송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9월 5일 창단 후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 도전하는 광주FC의 출정식 편에서는 지난 시즌 K리그에서 A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엘리트 출전권을 따낸 광주FC가 9월 17일, 일본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창단 후 최초로 국제대회를 뛰게 된 광주FC의 힘찬 각오와 포부, 출정식 현장을 나눠주셨다. 광주FC ‘응원가’, ‘응원 구호’와 출정식 현장에서의 감독이나 선수의 각오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된다.

-9월 13일 <테마기행 길> 시·서·화·창이 넘실대는 보배 섬 ‘진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자 시와 글과 그림과 창, 그 옛 영혼이 깃든 곳 예향의 고장 ‘진도’의 진도타워, 소포리의 소리, 세방낙조, 옥주골작장소, 홍주, 샤인머스켓 포도원을 소개해 주셨다. 최주봉 씨의 진행과 내레이션으로 구수한 목소리로 지역의 특색을 알려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할 수 있었다. 다음 편도 기대된다.

- 김안나 위원 : -<남도탐구생활>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소식을 첫 번째로 전했는데, 강기정 광주 시장이 ‘미지근한 태도 지속 시 군공항 폐쇄도 고려’한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미지근한 태도의 정부와 전라남도에 강경 대응의 발언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담긴 것으로 보였다. 공항은 국방부 시설로써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점도 이해가 된다. 광주시가 약속한 지원금 1조 원도 시의 재정으로 보면 큰 부담일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길 바란다.
- 박종수 위원 : -9월 19일 목요일 <남도탐구생활>에서는 지역 밀착 심층 뉴스로 굵직한 소식이 소개되었다.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과 광주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데뷔무대에서 요코하마를 상대로 첫 승리, 기아타이거즈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 등이 그것이다. 이 뉴스들은 여러 채널 및 지역 뉴스, 각종 스포츠뉴스 등에서 많이 다뤘던 뉴스다. 이런 굵직한 뉴스도 좋지만, 명절 뒤에 감춰졌던 지역 뉴스를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월간 본술랭 첫 해설 자막 크기가 작아 보는 이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읽기가 어려웠던 거 같다.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색감은 선명한 색으로 했으면 보는 이가 보고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듯싶다.
- 유한별 위원 : -<시사 용광로> 답보상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풀 열쇠는? 편을 시청했다. 복잡한 지역 현안을 조명하며 군공항 이전 문제의 정치적, 사회적 측면을 균형 있게 다뤘다. 이번 편은 전문가와 정치인의 의견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현 상황의 장기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해당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다만 홈페이지에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한성’ 호남대 교수로 기재되어 있어 오타 수정이 필요하다.
- 이경주 위원 -‘한 걸음 더’ 서른 살 광주비엔날레의 성과 보도에서 1995년 제1회 개막을 시작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이루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광주비엔날레의 30여 년의 성과를 집중취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층의 전문가 인터뷰 외에도 오랜 세월 함께 지켜본 광주시민의 인터뷰 또는 대인예술시장의 장미란, 선동열 벽화 등으로 잘 알려진 시민의 생활 속 프로젝트 등을 같이 소개해 주었다면 시민과 함께 성장한 비엔날레의 모습으로 다채롭게 보이지 않았을까. 홈페이지 디지털콘텐츠에는 섹션이 다양하다. 외국어로 구성된 다수의 섹션이 많다.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를 위한 한글 제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 이숙희 위원 : -9월 1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영광을 시작으로 재개된 가운데 원안위가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긴 하지만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방사성 영향이나 감소 방안에 관한 의견 수집 수준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많고 한수원은 공청회 강행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한빛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시도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지속해주길 바란다.

- 장은백 위원 : -평소 저녁 시간이 여의찮아 광주MBC 뉴스를 유튜브로 확인하는 편이다. 유튜브 뉴스 창에 들어가면 클릭해서 본방송을 보기 전에 예비 화면이 뜬다. 예비 화면 단계에서는 자막이 달려 있다. 이 자막에 오타자나 빠지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 내용 전달이 어려울 정도다. 예를 들면 9월 19일 자 광주 MBC 뉴스 군 공항 이전에 관한 국회의원 토론회 방영분을 보면 예비 화면 초반 일 분 동안 오타자 및 단어 누락 부분이 열다섯 화면 정도 확인될 정도다. 본방송에는 전체자막이 들어가 있지 않아 청각 장애인 분들은 예비 화면에서 뜨는 자막을 통해서 뉴스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자체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정인영 위원 -수년 전 광주MBC <문화콘서트 난장> 공개방송에 방청객으로 참여하려고 알아봤던 기억이 있어 찾아보니,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매주 목요일 밤에 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클립 서비스 등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 녹화분을 재방송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저하하는 요인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며 광범위한 뮤지션에게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음악 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계속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및 블로그 업데이트.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근 녹화 및 방송 일정, 참여 뮤지션 정보, 방송 내용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하겠다. 이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다음은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녹화된 방송인지 라이브 방송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해당 정보를 방송 화면에도 표시하여 시청자들이 혼동 없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난장>은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신뢰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음악 방송의 성공을 넘어, 우리 대중음악 문화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 정희 위원 :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의 무안으로의 통합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노출하는 것은 무안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9월 6일 공항 이전 설득에 총력전 이후 공항 이전 연말까지 안되면 결심한다, <시사 용광로>에서 정부의 개입 절실하다 등을 방송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방송을 통해 광주와 전남 무안의 공항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는 데 광주MBC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을 환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월 2회 정도는 지속 노출해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희망한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의견으로 9월 2일 제시된 시청자 의견이 올라와 있다. 내용은 2024년 가을 개편에는 토요일 MBC <뉴스투데이> 방송 시간을 20분에서 80분 확대 및 1, 2부 편성을 바란다는 것이다. 지역방송의 80분 확대는 가능한 것인가?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지역사가 뉴스 80분 편성 시간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뉴스 제작 등 인력의 어려움 등이 많다. 지역 뉴스 확대를 바라는 시청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의견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오늘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셨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9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